

■ 스포츠

골프 세계 1위 놓고 한국 남자들 간 치열한 경쟁

한국 남자들 간에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4일 '스포츠크링'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 고진영과 2위 김세영의 격차가 0.41점으로 좁혀졌다. 고진영은 7.79점, 김세영은 7.38점이었다. 직전주는 둘의 격차가 1.03점이었는데 0점대로 진입한 것이다.

고진영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폐막한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 처음 나와 공동 34위에 올랐다. 고진영이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김세영은 지난 10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펠리컨 챔피언십까지 연속 우승하며 고진영을 바짝 추격했다. 김세영은 이 대회에서 14언더파 266타로 우승하며 시즌 2승과 함께 2015년 LPGA 투어 진출 이후 통산 12승을 달성했다.

김세영은 이 대회 우승상금 22만 5,000달러와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보태 시즌 상금 113만3219달러, 누적 포인트 106점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박인비(시즌 상금 106만 6520달러·90점)를 제치고 두 부문 모두 단독 1위로 올라섰다. 교포 대니얼 강

(미국)과 함께 2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며 기존 1위였던 평균타수(68.111타)까지 총 4개 부문 1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 뒤 인터뷰에서 "메이저 우승 이후 처음 나온 대회에서 12승째를 따내 기쁘다"며 "세계 1위가 올해 가장 큰 목표다. 올해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세계 랭킹 1위로 목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텍사스주 더플로니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아메리카 불런티어스 클래식에는 고진영만 출전한다. 김세영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다.

김세영은 올 시즌 남은 3개 대회 중 마지막 2개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12월 10일 개막)과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12월 17일 개막)에 출전할 예정이다.

둘 사이의 치열한 세계 1위 경쟁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고진영과 김세영 외에 박인비가 5위를 지켰고, 9위 박성현, 10위 김효주의 순위도 변동이 없었다. 이정은 6위와 유소연은 각각 12위와 14위를 유지, 유해란은 17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 김세영이 LPGA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에서 1위 고진영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고진영이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트로피를 들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Fullerton 추억을 부르는 철길 따라 걷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 철길 위를 걸어 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철길 위를 걸었던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미국에서 철길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 열차가 올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철길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길을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다리 위를 걸으며 무심코 아래를 봤는데 철길이 쪽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감했는데 드디어 다녀와서 여러분께 소개한다. 현재 이 철길은 사용되지 않고 있어 기차가 올라봐 두려워 할 염려가 없다. 관리하지 않은 탓에 철길 위로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있고, 주변에 야생의 팜트리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어 캘리포니아의 정취가 돋보인다.

다. 왼쪽으로 가면 Bastantury 길옆으로 계속 가다가 Commonwealth Ave. 만나는 지점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철길과 만나게 된다. 오른쪽을 택한다.

약 오 분쯤 걷다보면 위에 다리가 보이고 다리 기둥에 낙서들이 요란하다. Harbour Blvd.를 만나는 지점이다. 여기서 좀 더 걸으면 풀러턴 골프코스가 오른쪽에 보이고, 더 걷다보면 Hermosa 초등학교가 나온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더 걷기를 원하면 계속 철길 따라 가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오면 된다. 필자는 허모사 초등학교에서 돌아왔다. 왕복 약 3.2마일 정도 된다.



지나치게 추억에 빠져 걸어서는 곤란하다. 수시로 마주치는 자전거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Euclid St.과 Bastantury Rd. 만나는 곳에서 Bastantury 동쪽으로 가다가 Morelia Ave.에서 좌회전하고 Laguna Rd.를 만나면 적당한 곳에 주차한다. Laguna Rd.를 건너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을 걷다가 다리를 만나면 오른쪽 길로 내려가면 철길을 만난

사진=타운뉴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라이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 \$795,000	산타애나 4유닛 방3 화2 / 방2 화2 Garage, 1977년생 수입 \$79,200 \$1,195,000	시터 오브 오렌지 4유닛 방2 화2 / 방2 화1 Garage, 1979년생 수입 \$79,200 \$1,280,000	오바린다 3유닛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1,999,000	부에나팍 3유닛 방3 화2 / 방1 화1 1971년생 수입 \$58,672 \$1,100,000	애나하임 3유닛 방3 화2 / 방2 화2 Garage, 1976년생 수입 \$54,000 \$950,000
	애나하임 단층집 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위에 방, 화장실 있음 인권 청출 포텐셜 \$735,000	애나하임 6유닛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2 좋은 학군 건평 1,844sq \$999,000	애나하임 4유닛 방2/1 화1 월인컴 \$7,912 파킹5대 \$1,295,000	부에나 팍 3유닛 방2 화1 월인컴 약 \$4,400 \$850,000	터스틴 4유닛 방3/2 화2/1 월인컴 \$7,198 \$1,425,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